

폭염 속 홀로 계신 어르신 안전 살핀다, 현수엽 제1차관 현장 점검

-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종사자 간담회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댁 방문 -
- 폭염 건강수칙 강조,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4일(금)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폭염 속 여름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폈다. 한편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홍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폭염 대책 기간(5~9월) 동안 홀로 계신 어르신 보호를 위해 「2026년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약 56만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담당 생활지원사가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1~2회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약 27만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폭염 특보 등 폭염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무더운 날씨 속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인 단원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과 행동요령 전파,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수엽 차관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더불어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어르신들께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안전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활지원사 등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종사자의 안전대책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현수엽 차관은 단원구 내에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댁을 찾아 여름 침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주거 여건과 냉방 상태, 어르신의 생활환경 등을 세심히 살폈다. 또한 평소 이용 중인 노인맞춤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폭염은 특히 홀로 생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어르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라면서 “폭염 기간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한 명의 어르신에게도 관리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주요 내용
3. 폭염 대응 행동요령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 개요

- (일 시) 2026. 7. 24.(금) 15:00~16:30(90분)
- (장 소) 단원구노인복지관(경기 안산시) 및 독거 어르신 가정
- (참석자) 총 18명 내외
 - (복지부) 제1차관, 노인정책과장, 담당자 등
 - (지방정부) 경기도 사업담당자, 안산시 통합돌봄과장 등
 - (수행기관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장, 종사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
- (주요내용) 노인맞춤돌봄 등 종사자 현장간담회, 어르신 방문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일정
15:00~15:50	▶ 기관 사업 현황 보고 및 종사자 간담회
15:50~16:10	▶ 이동 (기관 → 독거 어르신 가정)
16:10~16:30	▶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 (안전확인) 생활지원사(3.7만명)·ICT장비 등을 통한 취약노인* 안전확인 강화, 중대경보 시 고위험군(거동불편, 논발 작업자 등 9.4만 명) 집중관리
 - *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 필요 노인 56.6만 명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등 맥내 설치된 ICT장비로 화재, 응급호출, 활동 미감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지원('26.6월 기준 27.6만 가구)

< 폭염 특보별 안부 확인 체계 >

대상	평상시	폭염주의보·경보
고위험군*	주 2~3회 전화방문	매일 1회
그 외 취약노인	주 2~3회 전화방문	주 2~3회

- * (고위험군) 초고령·거동불편·냉방불량, 치매·인지 저하, 주거 취약, 논발 작업, 퇴원환자 등 수행기관별 사전 선별 관리
- (홍보·교육)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 폭염 행동요령 안내 포스터(8만 부) 및 간이안내서(55만 부) 배포(~6.5)
 - * 혹서기 안전관리, 응급처치요령, 폭염대응 행동요령 등 수행인력 교육(지속)
- (후원물품 지원)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민간기업·단체후원 (혹서기 착한바람 캠페인(5~9월))^{*} 통해 냉방 용품 등 지원
 - * 여름이불, 식료품 등 약 25억 원 후원 접수, 약 5.1만 명 7.6억 원 상당지원(7.20. 기준)
- (현장점검 등) 전국 시군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84개소 대상 대책 이행 점검(5~6월)
- * (노인정책과) 17개 시도 소재 시군구지역수행기관 각 1개소, (그 외) 시군구 자체점검 실시

※ (생활지원사 업무수행 시 안전조치 강화)

- 폭염중대경보 등 상황 시 야외 이동 근무를 최소화하고, 전화, ICT, AI콜 등 활용 안부 확인, 실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
 - * 대상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을 활용하여 생수(얼음물), 쿨토시 등 필요 물품 구입하여 지원
 - ** 야외 이동 시 종사자가 활용 가능한 무더위쉼터 등 휴식공간을 사전에 파악·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무더울 땐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 !



**가급적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냉방기기 사용 시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자제하세요.**

신장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어지러움, 두통 등 발생시

단계 및 종류 영향

3 폭염중대경보

현저한 중대피해 우려

2 폭염경보

중대한 피해 우려

1 폭염주의보

피해 가능성 증가

열대야주의보

수면 회복 저하 우려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Stop, 이동/Move, 확인/Check



중단(Stop)

최대한 지금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동(Move)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는 위험합니다. 무더위쉼터,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시고, 수분을 보충하며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Check)

당신의 가족, 이웃, 차 안에 남겨진 생명을 확인하십시오. 독거노인 및 이웃에게 지금 전화를 거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



119 중앙응급구조대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 시 연락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

- 3 -